

'아빠 어릴 적 학교 가는 길'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20만명 돌파 특별 연장, 28일까지



◆ 테마별로 전시되고 있는 전시실에는 옛 추억을 되살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은 과거 연탄가게를 재현한 모습

어린이들의 겨울방학기간에 맞춰 무료로 관람을 진행하고 있는 '아빠 어릴 적 학교 가는 길' 전시회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부모의 유년을 자녀들이 함께 공유하며 부모들에게는 학창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자녀들에게는 과거로의 체험교육을 통해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취지로 열렸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계획했던 이번 전시회는 평일 3~4천명, 주말 1만명 이상 관람하며 1월 31일까지 총 관람객이 20만명을 돌파하는 등의 예상 밖의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한달 연장된 이번달 28일까지 전시회가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아빠 어릴 적 학교 가는 길'은 6~70년대의 등굣길을 테마로 표현했다. 전시회장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대문이 나타나는데 대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바로 등굣길이 시작된다.

골목길을 따라 전파사, 이발소, 연탄가게, 구멍가게, 문방구를 골목길 좌우에 배치하고 학교 교실까지 가는 길을 연출했다.

골목길 벽면과 자투리 공간은 각종 생활

물품과 옛날 책, 소품들을 이용해 구성했다.

쉽게 볼 수 없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포스터, 회귀 담화문, 표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영화 '효자동 이발사'에 촬영됐던 세트틀 그대로 들여와 전시했다.

전시회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으며 전파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부터 시작하여 시대별로 발전된 라디오의 변천과정을 관람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과 전축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였다.

연탄가게를 지나 구멍가게에는 창문으로 난 가판대에 다양한 옛날 담배가 전시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분유, 조미료, 음료수병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옛날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며 구멍가게 안으로는 쪽방을 만들어 더욱 생동감 있게 연출했다.

구멍가게를 지나면 바로 문방구가 있다. 문방구 옆으로는 70년대의 나무전봇대와 전등, 소변금지 문구까지 실감나게 표현했고, 문방구 내부에는 필통, 화습지, 딱지, 눈감사방 등과 그 당시의 캐릭터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놀이기구와 장난감을 통해 추억에 빠져볼 수 있다.

또 문방구 뒤편의 서점에는 7~80년대의 월간 잡지와 만화책, 어린이 동화책



◆ '아빠 어릴 적 학교 가는 길' 전시회가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등 다양한 옛날 서적이 전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학교 교실이다. 지금은 작아서 앉을 수도 없는 책걸상이 있고 책상 옆 고리에는 책가방과 실내화주머니가 있으며 난로 위의 양은 도시락과 풍금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학교교실을 지나서 나오는 길에는

양품점과 많은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으며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는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다.

'아빠 어릴 적 학교 가는 길' 전시회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부모님의 해설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로그(<http://blog.naver.com/hstory1.do>)를 방문해 전시장의 분위기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권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하룻밤 꿈같은 열차여행'

별밤열차 타고 스트레스 확~

업무에 쫓기고 일상에 지친 수도권 시민들에게 하룻밤 꿈같은 기회가 제공된다.

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 김기연)은 이달부터 토요일 이틀씩 매주 서울역 19:30 출발, 22시 30분 귀환을 약속하는 총 300석 규모의 '별밤열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교외선을 따라 구리, 팔당, 양수까지 왕복하는 이 열차는 도심 일상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3시간 남짓 별빛과 달빛, 조망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열차 내 신비로운 분위기와 화려한 한강 야경을 보며 추억에 젖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탑승 환영 인사로 받는 잠미꽃과 승무원들의 환영인사, 샌드위치·와인 세트는 행복 충전을 위한 덩어리 기쁨과 추억이 두배가 된다.

또, 이벤트 칸에서 진행되는 'DJ와

함께 하는 음악방송'에서는 신창곡을 받아 들려주고 '다이브콘서트 & 풍선아트 공연' 행사가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48석 규모의 이벤트 차량이 따로 준비돼 언더 가수의 1시간여에 걸친 낭만 콘서트가 펼쳐진다. 여기에는 연인에게 주는 달콤한 사연과 사랑의 프로젝트가 전해지면서 여행이 절정에 달한다.

특히 지난 발렌타인데이, 연인들에게 뜻깊은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다가오는 화이트데이에도 연인들의 황홀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해 '사랑의 나눔 별빛열차' 행사를 진행해 훈훈한 감동을 선물했다.

구립 용산노인요양원, 지역별 아동센터, 믿음의집 관계자 및 어린이, 학생 등 70여명을 초청, 기존 음악방송과 라이브 콘서트 등에 특별 이벤트를 더해 이웃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했다.



사내 동아리가 주축이 돼 펼친 이번 행사는 코레일 김기연 사장의 격려와 지속적인 여행상품을 지원 등의 약속으로 더 훈훈한 감동을 전했으며 코레일관광개발은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알뜰 배낭여행객을 위한 찬스

레일유럽 창립 15주년 기념, 67지 풍성한 할인 행사 진행

유레일 패스를 비롯 유럽 국철패스와 열차 티켓을 30년 이상 한국에 배급해온 레일유럽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2월 부터 6가지 프로모션을 동시 진행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랑스 국내를 누비는 대표 초고속 열차 떼제베(TGV), 프랑스와 스위스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인 떼제베 리리아(TGV Lyria), 해저터널을 통하여 런던에서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특별한 초고속 열차 유로스타(eurostar), 서부유럽 대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 탈리스(Thalys), 프랑스, 스위스 철도청 등이 참여한 이번 프로모션은 총 6가지이며, 대부분이 가격 할인 프로모션으로 진행된다.

이 밖의 유로스타 레저셀렉트 편도·왕복 특별 가격, 떼제베 노선 최대 60% 할인, 떼제베 리리아의 스위스 제네라-로잔 이동 구간 60% 할인, 탈리스 1등석 콤포트1/2 반액할인, 프랑스 4-9일 철도패스 25%할인, 스위스 패스 소지자 무료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혜택이 펼쳐진다.

이 행사는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서부유럽을 가고자 하는 배낭여행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할인을 적용 받은 프로모션 티켓 혹은 패스의 경우 여행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자신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벤트 패스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시기는 대부분 2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다.

각 프로모션 별로 적용되는 자세한 내용과 규정은 프로모션을 주관하는 레일유럽(www.raileurope.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렌딩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류 판매
- 핵심인력

02 포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심의 전산포달담당
- 프로젝트 및 행사기타, 운항 설비공사
- 전자인력, 문서세탁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불용물품의 불용처리 업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알감히 해결

불용인력 및 불용인력 관련 수거사업의 고객에 대한 정보수출을 담당하고 전자폐기물류의 인력 수거사업의 담당자 전이제도의 효율적 배부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본업인 업무 특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폐기물처리 수거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최상의 해결방안을 통해 부족한 내국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레이저타운

불용물품 관리전환 전문 Tel.(032)462-3550 Fax.(032)446-2308